

“추석 명절 다 함께 멈춰주세요”

완도, 고향 방문 자제...귀성·역귀성 PCR검사 권고 별초 대형 서비스·읍면장 부모 안부 살피기 등 추진

완도군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군민과 향우를 대상으로 귀성과 역귀성을 자제하는 ‘다 함께 멈춤 운동’을 9월 한달간 전개한다.

완도군은 최근 확진자의 90% 이상이 높은 전염력과 전파 속도가 빠른 델타 바이러스로 나타나고 있어, 다가오는 추석 명절 인구대이동이 확산세의 기록제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큼에 따라 ‘다 함께 멈춤 운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게 됐다.

다 함께 멈춤 운동은 4대 분야, 31개 중점 과제를 추진한다.

4대 분야는 ▲다 함께 멈춤 운동 참여 분위기 확산 ▲군민·향우 참여 제고 위한 행정 서비스 지원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특별 방역 대책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산물 소비 촉진 등이다.

먼저 다 함께 멈춤 운동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 군수 서한문 배부, 전국 향우회장 공동 명의 호소문 발표, 민·관 합동 캠페인, SNS 릴레이 캠페인 등을 추진한다.

‘다 함께 멈춤 운동’ 참여 제고를 위한 행정 서비스 지원으로는 ‘사랑의 콜센터’를 통한 온라인 부모님 안부 살피기, 별초 대형 서비스, 홀로 사는 어르신 등 1,000여 명 대상 한가-We 음식 나눔, 온라인 성묘 서비스, 가족 대형합동 성묘 등을 지원한다.

특히 ‘사랑의 콜센터’는 1일부터 17일까지 고향을 방문하지 않는 향우가 ‘부모님 안부 살피기’를 읍·면에 신청하면 읍면장이 대신 부모님을 찾아 뵙고 안부를 살피며 자녀들과 영상 통화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별초 대형 서비스는 신청 기한을 오는 7일까지 연장한다.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특별 방역 대책으로는 불가피하게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의 경우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은 후 방문하도록 강력 권장하고, 역귀성객은 가정으로 복귀 시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진단 검사를 받도록 한다.

아울러 오는 17일부터 22일까지 읍·면 안심 콜 번호로 전화를 걸어 방문을 인증하는 ‘귀성객 신고제’를 운영하고, 각 마을이 주체가 되는 ‘마을 지킴이 방역 봉사단’을 구성하는 등 귀성·역귀성 명단 파악 관리 및 방역 수칙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군민과 외지인 접촉 최소화를 위해 테이블을 분리하는 안심식당 지정·운영과 야외 음주 등 방역수칙 취약 지역에 대해 경

찰과 합동으로 특별 단속, 주요 관광지 방역 보안관제도 운영한다.

완도군은 지역 특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마케팅도 추진한다.

완도군 소멸법인 ‘완도군이숍’을 통해 무료 배송 및 할인 등 이벤트를 추진하며 롯데마트와 마켓컬리, 쿠팡, 홈플러스 등 대형 유통 업체에 물류비용 등을 지원해 특산물 소비 촉진 마케팅을 전개할 방침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완도군 확진자 발생 사례를 보면 타 지역 방문을 통한 외지인과의 접촉으로 인한 감염이 대부분이다”면서 “추석 명절에 가족을 만나지 못해 아쉽겠지만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귀성 및 역귀성 자제와 방역수칙 준수 등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완도=최규욱 기자



지난해 완도군에서 추진한 추석 명절 이동멈춤 운동의 일환인 영상통화로 부모님 안부 살피기를 지원하고 있다. /완도군 제공



강진군에서 ‘망고포도’로 알려진 샤인머스켓이 주산지보다 앞서 수확이 시작돼 농민을 기쁘게 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강진 샤인머스켓 조기 수확

온난 기후·노지 재배 등 지리적 장점 탁월

강진군에서 ‘망고포도’로 알려진 샤인머스켓이 주산지보다 앞서 수확이 시작돼 농민을 기쁘게 하고 있다.

샤인머스켓은 아삭한 식감과 씨가 없고 껍질이 얇아 통째 먹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특유의 풍미와 높은 당도를 자랑해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과일로 정착되고 있어 재배면적도 전국적으로 늘고 있다.

강진군은 농업인 소득작물 육성을 위해 2019년부터 샤인머스켓 포도 식재를 지원해 현재 22농가에서 7.2ha까지 생산하고 있다.

특히 남해안 연안에 위치해 온난한 기후를 가지고 있어 포도 재배의 경우 노지 재배에서도 높은 당도로 주산지보다 열흘 이상 수확을 당할 수 있다는 지리적인 장

점을 가지고 있다.

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해 전남도의 공모사업에 명품 포도 육성을 목적으로 3년간 1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시설 하우스 포도 식재 농가를 대상으로 수확 시기를 당기고 조기에 당도를 올리기 위해 보온덮개와 재배 대비 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전략적 육성사업에 참여한 농가들은 지난해에 비해 약 10일 정도 수확이 빨라졌고 주산지보다 보름 이상 앞당겨진 지난 달 24일부터 수확을 시작했다.

/강진=한태선 기자

신안 흑산도 ‘새조각 공원’ 개장

철새 공예품·조류 목각 등 3개 테마 구성

철새들의 휴식처인 신안 흑산도의 ‘천사섬 새 조각 공원’이 리모델링을 마치고 문을 열었다.

1일 신안군에 따르면 최근 흑산도 읍동마을에서 박우량 군수와 김영록 전남도지사,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갖고 철새 가락지 부착식 연과 자연방사 등을 진행했다.

새 조각공원은 흑산도의 우수한 자연생태를 널리 알리고 관광인프라 구축과 외부 방문객 유치에 위해 지난 2014년 개원했으나 수차례 태풍과 강한 해풍으로 그동안 노후, 방치됐다. 이에 신안군은 흑산도만이 지닌 지역적 특성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새 조각 공원 리모델링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왔다.

자연친화적인 공원에는 자연교석과 세계 20여개국의 철새를 활용한 다양한 조류 공예품과 조형물 700여점이 들어섰다.

동백나무와 배롱나무, 장수매화, 야생화 등 27종 6,500여주의 수목도 심었다.

관람로를 따라 아프리카 짐바브웨의 쇼나 새 조각 310점이 위용을 뽐낸다.

새 조각박물관은 철새 공예품과 흑산 동박새, 세계의 조류 목각 등 3개의 테마로 구성됐다.

새와 관련된 다양한 목각, 공예 예술

품 전시는 국내에서 최조다.

특히 박우량 군수와 공직자들이 펜데믹 시기 전부터 공무와 개인적인 국외 방문 때마다 철새로 만든 다양한 조형물을 구입해 기증한 특별한 곳이다.

또 미국의 저명한 철새목각 수공예 제작업체인 버드허그 스튜디오에서 실제 동박새와 똑같은 목각 60점을 제작해 전시했다.

박우량 군수는 “새 조각공원은 생태 자원이 밀집된 흑산도의 우수한 자원을 알리는 큰 축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며 “특화된 지역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를 적극 발굴·육성해 소외된 섬 주민들의 삶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주열 기자

강진청자축제 내달 1일 온라인 개최

스마트 퀴즈쇼·힐링 버스커·노래자랑 등 다채

강진군은 제49회 강진청자축제를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오는 10월 1일부터 7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군은 최근 강진청자축제 위원회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장기화와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급속한 지역사회 확산을 우려해 강진청자축제는 온라인 개최하고 제6회

강진만 춤추는 길대축제는 취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올해로 49번째를 맞은 강진청자축제는 ‘강진품애향에 로그인’이라는 주제로 오는 10월 1일부터 7일까지 강진군 유튜브 채널 ‘짚’을 통해 라이브로 진행되며 강진 스마트 퀴즈쇼를 시작으로 힐링 버스커, 강진 청자골 온라인 콘서트, 읍면 노래자

랑, 문화예술 힐링데이, 강진명품청자경매, 특산물 세일 등 다양한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특히 축제 개최 전 유튜브 구독과 댓글 추첨으로 경품 증정 이벤트도 진행하는 등 처음으로 추진하는 온라인 청자축제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축제를 취소했지만 올해는 온라인으로 축제를 개최해 코로나로 지친 군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함께 일상회복을 준비하는 군민의 화합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진=한태선 기자

클릭! 고향 속으로



목포지역 6개 신협, 마스크 전달

목포지역 신협들이 최근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사용해 달라며 1,100만 원 상당의 마스크 4만 5,000장을 목포시에 전달했다.

이번 나눔은 목포(이사장 박우영), 풀벌(이사장 김학산), 대상(이사장 임태삼), 용해(이사장 박장복), 북교(이사장 김권준), 우리(이사장 김애란) 등 목포지역 신협 6개소가 자산 1조원 돌

파를 기념해 지역사회에서 받은 사랑을 환원하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시는 기부받은 마스크를 외국인 고용 기업체와 연근해 내·외국인 선원 등에게 우선 전달할 계획이다.

김종식 시장은 “뜻 깊은 성장을 나눔으로 기념한 6개 신협에 감사드린다”며 “코로나 극복에 큰 힘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목포=김동균 기자



목포경찰, 찾아가는 이동상담소 운영

목포경찰서는 신안군 도서지역 노인 성폭력 예방활동을 위한 찾아가는 이동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찾아가는 이동상담소는 도서지역 특성상 교통불편으로 생긴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치안서비스로 마련됐다.

지난달부터 신안군압해읍, 지도면을 시작으로 관계기관과 함께 공공근로장

소, 마을회관 등을 찾아가 노인 성범죄 예방 퀴즈, 위급상황 대처요령 및 호신용 전자호루라기 배부 등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자복영 서장은 “섬 지역 도민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치안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김동균 기자



영암경찰서, 군의원 대상 치안설명회

영암경찰서는 자치경찰제 본격 시행에 따라 방법시설물 확충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예산을 확보하고 공동체 치안 구현을 위해 최근 군의회를 찾아 치안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치안설명회는 영암군의회 의원들과 사무국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변화, 올해 영암경찰서 주요 범죄예방 추진시책,

2022년도 중점 치안시책과 범죄예방을 위한 마을 방범 CCTV 설치 등 환경개선 주요사업 등에 대해 중점 설명했다.

서태규 서장은 “자치단체, 의회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범죄예방 활동 추진 등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최복섭 기자